

[사회]

“운전 실수하면 전과자 될 판” 당혹

■ 현재 ‘교통법 면책조항 위헌’ 판결

“선진 교통문화 기여” 긍정 반응도

26일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책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데 대해 광주·전남지역 운수업계는 물론, 운전자들이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음주 운전 등 잘못이 없을 경우 형사처벌 면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날부터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반드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 과실이 아닌 단순 실수

로 인한 사고까지 그 결과만을 중시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전과자를 대거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택시나 버스 기사들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영업용 차량 운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생계에 대한 위협도 크다는 지적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남지부 박영배 상무는 “운전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상황에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다고 모두 처벌을 받는다면 운전 기사 대부분이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또 “차량간 사고의 경우 엄연히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양쪽 모두를 처벌해야 하느냐”며 “이번 판결로 이직이 더욱 늘거나 택시업계의 인력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버스운송업체인 D운수 관계자는 “도로사정 등 여러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는 모든 운전자의 문제”라며 “의지와 상관없는 사고로 형사처벌을 당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운전을 하겠느냐”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같은 반응은 일반 운전자들의 경우도 비슷하다. 회원 박모(29·광주시 서구 처평동)씨는 “앞으로는 출퇴근을 하면서도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하고 운전하라는 것이냐”며 “보험에 가입하고도 합당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종합보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번 판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져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교통법은 1997년에도 현재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위헌의견 5명으로 정족수(6명)에 미달해 합헌 결정이 난 바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 곳곳서 3·1만세운동 재연

제 90주년 3·1절을 맞아 광주·전남 곳곳에서 3·1만세운동이 재연된다.

광주지역 청년단체인 남광주 청년회의소(JC)는 26일 오후 6시 광주시 남구 일대에서 3·1 만세운동을 재연하고 3·1절 기념식과 태극기 보급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 행사에는 JC회원과 대학생, 시민 350여명이 참가해 남구 구동 광우공원에서 양림동 부동교까지 횡행행진을 갖는다. 회원들은 독립·국가유공자들을 초청해 사랑의 쌀도 전달한다.

또 다음달 1일에는 광주수피아여고 내 3·1만세운동 기념동상과 천변로 주변에서 만세행진 등이 재연되며, 순천시 낙안면에서도 ‘낙안 3·1절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가 펼쳐진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5분 해질 18시 26분 달출몰 07시 50분 달정 20시 44분

씨푸린 하늘 대체로 흐리겠다.

구분	기온	강수량
광주	흐림 2/9℃	
목포	흐림 1/6℃	
여수	흐림 6/10℃	
완도	흐림 3/9℃	
구례	흐림 2/11℃	
해남	흐림 3/9℃	
장흥	흐림 3/10℃	
곡성	흐림 4/11℃	
순천	흐림 6/12℃	
영광	흐림 0/6℃	
진도	흐림 3/9℃	
전주	흐림 1/8℃	
남원	흐림 2/10℃	
옥산도	흐림 3/5℃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목포 03:31	08:44
연안	북~북동	1.0~1.5m	15:49	21:03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1.5m	여수 10:28	04:09
연안	북~북동	1.0~2.5m	22:47	16:30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8(토)	3/1(일)	2(월)	3(화)	4(수)	5(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1/12	0/11	-1/10	1/8	1/10	1/10

사학 채용비리 파문 확산

전교조 광주지부 “교육청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 대책 촉구

광주시내 한 사립 중·고교 이사장의 ‘교원채용 비리 의혹’ 감사 요구(본보 24일자 6면 보도)와 관련, 지역 교원단체가 사립학교 재단 인사 비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는데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찰의 승려이자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자신의 학교 비리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 것은 사학비리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사립학교 교원인사와 관련해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채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이

고 있기 때문이다”며 관련 기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립재단이 학급증설이나 감축을 요구하면 시교육청이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해주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교원 과원에 따른 인사문제가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특수학교인 Y학교의 경우 불과 4년 전 임명한 유치부교사 2명이 과원을 이유로 학교를 떠났으며 그 자리에는 기간제 교사가 채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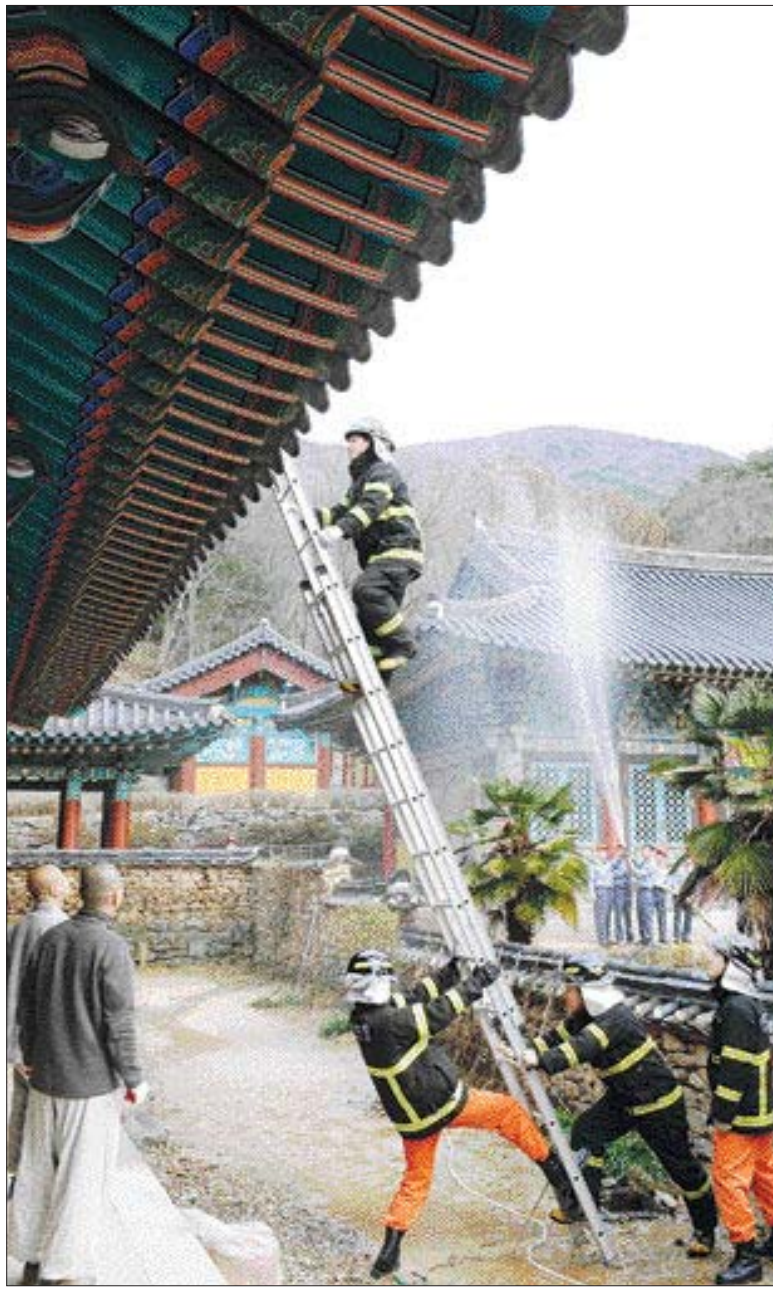
D여고도 6명의 과원이 발생해 4명이 공립으로 파견됐으나 2명은 교원수급상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D고의 경우 학생정원과는 상관없이 신규교사 2명의 채용이 승인됐다.

또 사립유수교사를 공립에 특채한다는 명목으로 10명이 채용되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과원으로 교사들이 쫓겨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과원을 키워나가는 기형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과원교사에 대한 중장기적 교원정원관리대책반을 구성하고, 사립학교측의 자구 노력이 미흡할 경우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등 행정지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 lucky@



목조문화재 소방훈련

광주동부소방서는 26일 무등산공룡관 리사무소 등 4개 유관 기관·단체와 함께 광주시 동구 무등산 중심사에서 목조문화재 화재에 대비한 합동 소방훈련을 가졌다.

/니명기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교육연대 “진단 평가 거부”

광주·전남지역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 단체가 3월 10일로 예정된 전국 학력 진단평가(초 4~중 3학년)를 거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지역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 교육연대’는 26일 광주 시내 모 식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일제 교사를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광주·전남 교육연대는 우선 다음달 3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일제교사 거부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세부적인

반대 투쟁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연대는 또 진단평가일인 3월 10일에는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 일제 교사 반대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은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야외학습을 떠나는 학생을 무단결석 처리하고 평가를 거부한 교사를 사안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경고한 방침을 세워두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퇴직교원 6천236명

훈·포장·표창 수여

정부는 이날 말 퇴직하는 광주 258명, 전남 337명 등 각급 학교 교원 6천 23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명단 인터넷 광주일보>
퇴직자 중 박정미 전 가톨릭대 총장 등 7명은 청조근정훈장, 김형중 호국교장 등 992명은 황조근정훈장, 이경민 광주시교육연수원장 1천299명은 홍조근정훈장, 김희진 봉주초교장 등 1천30명은 녹조근정훈장을 받는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 거주 외국인 4년 새 2배

2008년 1만1,923명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난 4년 새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시가 발간한 ‘2008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만 1천 923명으로 전년도 1만 161명에 비해 19% 증가했다.

이는 5천 743명이던 지난 2004년 말과 비교하면 4년 동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천 549명(46.5%)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1천 645명(13.8%), 필리핀 760명(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6천 320명(53.0%)으로 여자보다 717명이 많고 연령별로는 주 경제활동층인 20~30대가 74%를 차지했다. 거주 지역별로는 하남·평동·소촌·첨단 산업단지가 집중된 광산구에 5천 162명(43.3%), 북구에 3천 392명(28.4%) 등으로 2개 구에 70% 이상이 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시 전체 인구는 143만 4천 625명으로 지난 2007년 142만 3천 460명에 비해 1만 165명(0.8%) 늘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 어등산 불발탄 제거 재개

광주시에 관광단지 조성 추진 중인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의 불발탄 제거작업이 다음 달 2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광주시는 26일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불발탄 제거작업을 오는 3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불발탄 제거는 지난해 12월까지 육군보병학교가 사업대상지 153만㎡ 가운데 86만㎡(56%)에서 380발을 제거하고 나서 동절기를 맞아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어등산 현장에서 관련 부서 협의회를 열고 우선 작업대상을 선정해 육군보병학교가 다음달 2일부터 굴착기 등 장비 300여대를 집중 투입해 불발탄 제거작업을 본격 시작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발탄 제거 기간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입산을 금지하고 등산로 일부를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제20대 목포상공회의소 의결부 출범

지역 경제발전과 회원기업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장	주영순 (주)HN셀라	대표이사	김정용 (주)파시닷컴	대표이사
부회장	박철제 (주)한대삼호중공업(주)	부사장	김수현 (주)수영산업	대표이사
이	이한영 (주)태원여객	대표이사	문홍진 (주)신상사목포공장	공장장
의	이혁영 (씨월드고속해운(주))	대표이사/회장	박길성 (주)신원공업(주)	대표이사
심	고창희 (주)대마산업(주)	대표이사	박성중 (주)조원건설	총무이사
의	김복배 (주)아시아물류(주)	대표이사	박인수 (주)경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원	김상봉 (주)보해임주)	전무이사	박재형 (주)경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의	김희용 (주)행남저기	대표이사	박종우 (주)농림축산식품부	지부장
의	문동민 (주)대한세라믹스(조선내화)	고문	박정욱 (주)비라보프코트	전무이사
의	문정웅 (주)광산목재(주)	대표이사	홍정욱 (주)화원파이버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의	김성환 (주)서한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신종훈 (주)KCI(주)	공장장
의	신정환 (주)삼진건설(주)	대표이사	신태환 (주)세광조선	대표이사
의	우승하 (주)신안관광(주)신안비치호텔	대표이사	윤문철 (주)보해산업주축은행	부회장
의	이상현 (주)부국건설	대표이사	유환수 (주)보위테크(주)아유	사무이사
의	정정현 (주)목포도시가스(주)	부회장	유환수 (주)한국제분(주)	공장장
의	정조현 (주)대형식품	대표이사	이광수 (주)목포항도선사회	회장
의	김남준 (주)가산도건(주)	대표이사	이순성 (주)전남(주)영안관광	공장장
의	조승준 (주)덕흥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김영환 (주)영안관광	대표이사
의	김성준 (주)한일상사	대표	김영환 (주)국세건설(주)한영사	대표이사
의	김성준 (주)회계법인이촌	대표이사	김영환 (주)유동건설(주)신도시	대표이사
의	김성준 (주)경동상사	대표이사	김영환 (주)유동건설(주)신도시	대표이사
의	김성준 (주)대일물류(주)추진단	단장	김영환 (주)유동건설(주)신도시	대표이사
의	김성준 (주)남도공공	대표	김영환 (주)유동건설(주)신도시	대표이사
의	김성준 (주)유동상사	대표이사	김영환 (주)유동건설(주)신도시	대표이사
의	김성준 (주)유동택시	대표이사	김영환 (주)유동건설(주)신도시	대표이사

사무처장 최

(530-110) 전남 목포시 중동 2가 1번지
☎(061)242-8581, FAX (061)242-8584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제주도 제주시 노명동 741번지
등록번호 616-81-68236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보세요!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3일 89,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 등반 + 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99,000원) 방림원, 일출랜드,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애보세요~

목포출발 "목카투어" 89,000원 ★일정 -- 1일째 : 목포국제여객터미널 (9시 또는 14:30)출발 - 호텔1박 - 2일째 :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 등반 - 호텔1박 - 3일째 : 제주관광 - 제주항(17:30) 출발 (단, 일요일은 16:30 출발) ★출발일 : 매일 출발(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 토요일출발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포함내역 : 왕복선박, 숙박2박(4인실),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 성수기 기간 2만원 추가	고흥(능동)출발 "능동투어" 85,000원 ★일정 -- 1일째 : 능동 남해고속터미널(9:10)출발 - 호텔 1박 - 2일째 :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 등반 - 호텔 1박 - 3일째 : 제주관광 - 제주항(17:10) 출발 ★출발일 : 매일 출발(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 토요일출발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포함내역 : 왕복선박, 숙박2박(4인실),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 성수기 기간 2만원 추가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한라산 등반 15,000원 광주출발 "2박3일" 영광+영광투어 169,000원 (주중+주중) 179,000원 (주중+주말) ※ 유류 할증료 별도,상하기 기간 별도 문의
1박 2일 목카투어 79,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3박 4일 목카투어 119,000원 (한라산등반 + 2일 제주관광)	2박 3일 목카투어 + 영광투어 129,000(주중) / 149,000(주말)
7박 8일 제주여행 45,000원 → 29,000원	신한은행 100-024-623912 (주)제주무궁화관광	배민, 호텔, 펜션, 렌트카 예약

문의 : ☎064-744-1109 www.jejujmt.net (주)제주무궁화관광 · 협찬: 씨월드고속해리